

송천이 가는길

언제나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푸른 솔
한겨울 추위에 주변 모두 떠나가도
그대 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있네
어느덧 나이 들어 보 잘 것 없지만 내면의 기상 만
은

젊은 솔 그대로 인데 황혼의 시간은 갈 길을 재촉
하네

산골짜기 시냇물은 맑은 마음 가득 담아 여기저기
생명들을 살려내고

여러 갈래 함께 모여 냇물을 이루니 푸른 솔 구비돌
아 낮은 곳을 향하네

덩그러니 비어있는 웅덩이를 채우고 바위와 다툼 없
이 조용히 돌아가니 더 높은 곳 바람 없고 자연 순
리에 순응하네

소나무와 시냇물은 인위적 환경을 거부하고 자연의
요구대로 본분을 지키네

힘든 일 어려운 일 잘 참아 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
니 어느덧 황혼 되어 뒤 안 길을 걷고 있네

2026.2.17. 설날 아침(철학적의미를 되새기며, 진정 내 아호인 송천의 길
을 의미있게 걸어가고 있는가?)